

'9월 모평' 국어 쉽고 수학·영어 어려웠다

국어 만점자 6423명으로 40배 증가·수학 표준점수 8점 상승 영어 1등급 절대평가 도입 후 최저...수능 최저학력 미달 늘 듯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맞춰 처음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서 국어는 상당히 쉽게, 수학과 영어는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대평가인 영어는 1등급 비율이 적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1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9월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이 1년에 두 차례(6·9월) 실시하는 모의평가

중 마지막 시험이다.

국어 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이 127점으로, 작년 수능(144점)보다 17점 낮아져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모의평가의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146점)보다는 19점이거나 내려갔다. 국어 만점자 수는 6423명(1.61%)으로 지난해 수능 만점자 151명(0.04%)보다 4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국어의 1등급 커트라인도 124점으로 역시 작년 수능(131점)보다 7점 낮아졌다.

올해부터 문·이과 구분이 없어진 수학은 만점자

에게 주어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45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137점이었는데 8점이거나 올랐다. 표준점수는 시험이 어려우면 올라간다. 지난 6월 모의평가(146점)보다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1점 내려갔다. 수학영역 만점자 역시 1211명(0.31%)으로, 지난해 가형 만점자 971명(0.70%) 나형 만점자 1427명(0.53%)을 합친 2398명보다 1187명 줄었다.

절대평가인 영어는 아주 어려웠다.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 비율이 4.87%(1만9546명)로 나타났다. 영어 절대평가가 시작된 2018학년도 수능 이후 1등급 비율이 가장 낮았다. 지난해 수능에서 영어는 1등급이 12.66%(5만3053명)일 정도로 아주 쉬웠다. 지난 6월 모의평가는 5.51%(2만

1996명)로 상당히 어려워졌는데 9월 모의평가는 더 어렵게 출제됐다. EBS 교재·강의와 수능 연계율이 올해 50%로 낮아지면서 영어는 직접연계를 없애고 간접연계로 전환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절대평가인 영어가 어렵게 출제되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올해도 과목에 따라 유불리 문제가 여전했다. 사회탐구는 동아시아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71점으로 가장 어렵게 출제됐고, 생활과 윤리가 65점으로 가장 쉽게 출제됐다. 표준점수 최고점이 6점 차이가 났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메타버스로 청년정책 홍보 광주 북구, 12월까지 시범 운영

광주시 북구가 MZ세대 청년들과 폭넓게 소통하고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메타버스 청년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북구는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북구 청년월드를 구축, 가상공간에 청년센터존, 청년정책 홍보존, 포토존 등 5개 구역을 만들었다.

청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자신의 아바타로 접속해 청년센터를 둘러보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오는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제1회 북구 청년주간 행사장에서도 메타버스 체험이 가능하다. 행사 기간 동안 메타버스 북구청년월드를 방문해 인증샷을 피드에 올리면 '청년꿀정책'을 제공 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정병호 기자 jushb@



광주천변을 깨끗하게 2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임동 두물머리나루 앞 광주천변에서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 회원들이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원배 기자choi@kwangju.co.kr

광주, 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외면

조오섭 민주당 의원 "전국 지자체 60곳 14곳 설치 그쳐"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 등 건설사고 대형 참사에도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된 지자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인구 50만 미만인 세종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를 포함해 총 40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16개(40%) 지자체만이 설치를 완료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개 광역시·도만이 설치를 완료했지만, 광주와 전남, 전북 등 나머지 11개 광역시·도는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인구 50만 이상 설치 의무화된 24개 기초단체 중에서도 서울 4개 지자체, 경기도 5개 지자체를 비롯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11곳(45%)만 설치를 완료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난해 12월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그 외 지역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안전센터는 지자체의 건축 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조 의원은 "설치기준이 인구 50만으로 한정되면서 주요 광역시·도의 기초단체들은 대부분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열악한 건축 행정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철거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의 경우 지방 대도시의 기초단체이지만, 인구가 10만 명 수준으로 대형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각지대로 남아 있다"면서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최원길 기자 cki@kwangju.co.kr

코로나 속 '안전·안심' 충장축제 준비 만전

광주 동구, 개막 한달 앞두고 방역 부스 설치 등 매뉴얼 마련

올해 충장축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축제로 준비되고 있다.

29일 광주시 동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최대의 도심 길거리 문화예술축제인 '제18회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을 한 달 앞두고 코로나 일상시대에 안전한 축제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동구는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승리를 띄워줘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을 추억으로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심 끝에 축제 개최를 결정했다.

'힐링 YES 충장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충장축제는 오는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18민주광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광장 및 부설주차장, 신서석로, 충장로·금남로 지하상가 등 동구 일원에서 진행된다. 5일간 6개 분야, 16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면 프로그램을 30%로

축소하고 비대면 프로그램을 70% 확대했다.

동구는 별도의 축제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고 ▲단계별 관람객 인원 제한 ▲방역 운영부스 설치 ▲사전예약제 시행 ▲관람객과 공연팀 인·퇴장 분리 운영 ▲출입·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대폭 확충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행사 운영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올해 충장축제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힐링을 주기 위한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

꽃 피고 단풍 들 때 음주운전 사고 많다

광주 4월·전남 10월 빈번

광주에서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개화시기인 4월, 전남은 단풍철인 10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는 4월 66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체 608건 가운데 9.22%를 차지, 1년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해 872건의 가운데 10월 발생한 음주운전사고가 82건(10.63%)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을 기준으로는 휴가철인 7월(1642건·9.5%)과 8월(1568건·9.1%) 음주운전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감소세를 보이던 음주운전사고가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사고는 전국적으로 지난 2016년 1만 9769건에서 2017년 1만 9615건→2018년 1만 9381건→2019년 1만 5708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1만 7247건으로 9% 이상 증가했다. 또 음주운전사고가 많은 요일은 토요일,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자정 사이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2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31	3	
사 범	유아교육과	7	3	
예 능	음 악 학 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역지소로 36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승만한다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